

[18~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하룻밤 ㉠ 찬바람에 눈이 왔나 서리 왔나  
어찌하여 온 세상이 백옥정이 되었는가  
동창이 다 밝거늘 수정렴을 걷어 놓고  
거문고 비껴 안아 ㉡ 봉황곡을 연주하니  
소리마다 그윽히 맑아 태공에 들어가니  
파사 ㉢ 계수나무 아래 옥토끼도 돌아본다  
유리 호박주를 가득 부어 권하니  
유정한 향아도 잔 밑에 비치었다  
청광을 머금으니 폐부에 흘러들어  
호호한 흥중이 아니 비친 데가 없다  
옷가슴 헤쳐 내어 광한전에 돌아앉아  
마음에 먹은 뜻을 다 아뢰려 하였더니  
**심술궂은 뜬구름이 어디서 와 가리는가**  
천지가 깜깜하여 백물을 다 못 보니  
상하 사방에 갈 길을 모르겠네  
먼 봉우리 반쪽 끝에 옛 빛이 비치는 듯  
구름 사이로 나왔더니 **떼구름 미쳐** 나니  
**희미한 한 빛이 점점 아득하여 온다**  
중문을 닫아 놓고 뜰가에 따로 서서  
매화 한 가지 계수나무 그림자인가 돌아보니  
처량한 암향이 나를 좇아 시름한다  
성긴 발을 드리우고 동방에 혼자 앉아  
㉣ 금작경\* 닦아 내어 벽 위에 걸어 두니  
제 몸만 밝히고 남 비출 줄 모르도다  
비단 부채로 긴 바람 부쳐 내어 이 구름 다 걷고자  
푸른 대나무로 천 길의 비를 매어 저 구름 다 쓸고자  
㉤ 잘공은 만 리요 이 몸은 진토니  
쓸쓸한 이내 뜻이 생각하니 허사로다  
가뜩이나 시름 많은데 긴 밤은 어떠한가  
전전반측하여 다시금 생각하니  
**영허 소장\***이 천지에 무궁하니  
**풍운이 변화한들 ㉥ 본색이 어디 가리**  
우리도 단심(丹心)을 지키어 **명월 불 날 기다리노라**

— 최현, 「명월음」 —

\* 금작경: 황금 까치를 조각한 거울.

\* 영허 소장: 달이 왔다가 기울고, 없어졌다가 다시 생김.

(나)

무정히 서 있는 바위 유정하여 보이는구나  
최령한 오인도 직립 불의\* 어렵거늘  
만고에 **곧게 선 저 얼굴이 고칠 적이 없구나** <제1수>  
  
강가에 우뚝 서니 쳐다볼수록 더욱 높다  
바람 서리에 불변하니 뚫을수록 더욱 굳다  
사람도 이 바위 같으면 대장부인가 하노라 <제2수>  
  
한마디 말도 없는 바위 사귄 일도 없지마는  
고모 진태\*를 벗 삼아 앉았으니  
세상에 이익되는 세 벗을 사귄 줄 모르노라 <제3수>  
  
먹줄 없이 생긴 바위 어느 법도를 알라마는  
높고도 곧으니 귀하게 보이는구나  
애닦다 가히 **사람이면서 이 돌만도 못하랴** <제4수>

탁연 직립\*하니 본받음 직하다마는

구름 깊은 골짜기에 알 사람 있어 찾아오라

힘을 다해 오르면 기이한 **구경거리 많으니라** <제5수>  
— 박인로, 「입암이십구곡」 —

\* 최령한 오인도 직립 불의: 가장 신령스런 우리도 의지하지 않고 곳  
곳이 서기.

\* 고모 진태: 옛 그대로의 모습.

\* 탁연 직립: 높이 곧게 섬.

(다)

어린 염소 세 마리가 달달거리며 보도 위로 주인을 따라간다.

염소는 다리가 짧다. 주인이 느릿느릿 놀 양으로 쇠 걸음을  
걸으면 염소는 **종종걸음**으로 빨리 따라가야 한다. 두 마리는  
긴 줄로 목을 매어 주인의 뒷짐 진 손에 쥐여 가고 한 마리는  
목도 안 매고 따로 떨어져 있건만 서로 떨어질세라 열심히 따  
라간다. 마치 어린애들이 엄마를 놓칠까 봐, 혹은 길을 잃을까  
봐 부지런히 따라가듯.

(중략)

주인의 뒤를 따라 석양에 보도 위를 걸어가는 어린 염소의  
검은 모습은 슬프다. 짧은 다리에 뒤뚱거리는, 굽이 높아 전족  
한 청녀\*의 쫓기는 종종걸음이다. 조그만 몸집이 달달거리며 추  
위 타는 어린애 모습이다. 이상스럽게도 위로 들린 짧은 꼬리  
밑에 감추지 못한 연하고 검푸른 향문이 가였다. 수염이라기에  
는 너무나 양정한 **턱 밑의 귀여운 수염**, 그리고 게다가 이따금  
씩 어린애 목소리로 우는 **그 울음**, 조물주는 동물을 점지할  
때, 이런 슬픈 우형도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페이터는 일찍이 사람들에게 “무한한 물상 가운데 네가 향수  
한 부분이 어떻게 작고, 무한한 시간 가운데 네게 허여된 시간  
이 어떻게 짧고, **운명** 앞에 네 존재가 어떻게 미소(微小)한 것  
인가를 생각하라. 그리고 기꺼이 운명의 직녀, 클로우드우의 베  
틀에 몸을 맡기고, 여신이 너를 실 삼아 어떤 베를 짜든 마음  
을 쓰지 말라.” 했다. 이 염소는 충실한 페이터의 사도다. 그리  
고 그는 또 “네 **생명이 속절없고**, 너의 **직무**, 너의 **경영**이 허무  
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치열한** 불길이 열과 빛으로 변화시키듯  
하잘것없는 속사(俗事)나마 그것을 네 ㉠ 본성에 맞도록 동화  
시키기까지는 머물러 있으라.” 했다. **염소**가 그 주인의 뒤를 충  
충히 따르듯, 그리고 주인이 저를 흥정하고 있는 동안은 주인  
옆에 온순하게 충실히 기다리고 서 있듯, 그리고 **길가에** 버려  
있는 무청 시래기 옆에 세워 두면 **다투어 푸른 잎을 뜯어 먹**  
듯, 그리고 다시 끌고 가면 먹던 것을 놓고 충충히 따라가듯.

이 세 마리의 어린 염소는 오늘 저녁에 다 같이 돌아가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나오게 될 것인가, 혹은 그중의 한 마리는  
술 속으로 들어가고, 두 마리만이 가게 될 것인가, 또는 어느  
것이 팔려 가다가 팔려서 껌질을 벗기고, 어느 것이 남아서 외  
롭게 황혼의 거리를 타달거리고 갈 것인가, 그것은 아무도 모  
른다. 염소 자신도, 끌고 가는 주인도, 아무도 모른다. 염소를  
끌고 팔려 다니는 **저 주인**은 또 지금 자기가 **걸어가는 그 길**  
은 알고 있는 것인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며 **염소가 지나간  
그 보도 위로 걸어오는 것이다.**

— 윤오영, 「염소」 —

\* 전족한 청녀: 발을 작게 하려고 발가락을 감은 청나라 여인.

18.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설과 반어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 ② 동일한 색채어를 반복하여 대상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의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④ 명령형 문장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거리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계절의 변화를 제시하여 대상의 순차적인 변모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19. ㉠, ㉡을 중심으로 (가), (다)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을 화자의 정서와 연결하여 ‘시름 많’음을 드러내고 있고, (다)에서는 ㉡을 글쓴이의 정서와 연결하여 ‘생명이 속절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에서는 ㉠을 자연물과 연결하여 ‘풍운’의 영속적 속성을 드러내고 있고, (다)에서는 ㉡을 자연 현상과 연결하여 ‘치열한’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③ (가)에서는 ㉠을 화자의 태도와 연결하여 ‘단심’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고, (다)에서는 ㉡을 ‘염소’의 태도와 연결하여 ‘운명’을 따를 것을 강조하고 있다.
- ④ (가)에서는 ㉠을 시간적 배경과 연결하여 ‘긴 밤’의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고, (다)에서는 ㉡을 공간적 배경과 연결하여 ‘길가’에서의 외로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에서는 ㉠을 화자의 상황과 연결하여 ‘영허 소장’의 한계를 강조하고 있고, (다)에서는 ㉡을 ‘염소’의 상황과 연결하여 ‘직무’와 ‘경영’에 대한 거부감을 강조하고 있다.

20. (가)의 ㉠ ~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자연을 완상하는 것을 가로막는 대상이다.
- ② ㉡은 화자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도록 이끄는 기능을 한다.
- ③ ㉢은 화자가 처해 있는 비참한 모습을 나타낸다.
- ④ ㉠은 화자가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상이다.
- ⑤ ㉢은 화자가 동병상련의 심정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다.

21.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1수> : 초장에 드러난 화자의 감흥은 중장의 화자의 만족감으로 심화된다.
- ② <제2수> : 초장에 드러난 화자의 깨달음은 중장의 화자의 결심을 강화한다.
- ③ <제3수> : 중장에 드러난 화자의 행위는 중장의 화자의 태도로 이어진다.
- ④ <제4수> : 초장에 드러난 화자의 의문은 중장의 화자의 회의감을 유발한다.
- ⑤ <제5수> : 중장에 드러난 화자의 판단은 중장의 화자의 자기반성의 계기로 작용한다.

22.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전란의 경험이 바탕이 된 (가)와 (나)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형상화된 작품이다. (가)는 임금이 피란길에 오른 참담한 현실을 달이 구름에 가려진 상황에 비유하여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선정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인간이 본받을 만한 속성을 지닌 대상으로 바위를 인격화함으로써 바람직한 가치 회복을 회구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① (가)의 ‘긴 바람 부쳐 내어 이 구름 다 견고자’ 한다고 한 것을 통해 전란으로 인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가)의 ‘명월 불 날 기다리노라’라고 한 것을 통해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임금이 선정을 베풀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나)의 ‘곧게 선 저 얼굴이 고칠 적이 없’고 ‘탁연 직립하’다고 한 것을 통해 인간이 본받아야 할 바람직한 품성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가)의 ‘심술궂은 뜬구름’이 ‘가리’고 ‘떼구름 미쳐’ 난다고 한 것과 (나)의 ‘구름 깊은 골짜기’에 ‘구경거리 많’다고 한 것을 통해 전란으로 인한 참담한 현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가)의 ‘희미한 한 빛이 점점 아득하여 온다’라고 한 것과 (나)의 ‘사람이면서 이 돌만도 못하랴’라고 한 것을 통해 부정적 현실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군.

23. <보기>의 ㉠ ~ ㉣와 관련하여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선생님 : 이 작품에서 작가는 ㉠ 염소의 모습을 묘사하며 염소에 대한 연민을 드러냈고, ㉡ 그 염소에게 일어날 일을 상상하며 염소의 주인에 대해 떠올린 생각을 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 염소와 그 주인에 대해 사색한 내용을 자신과 결부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순차적 구성은 작가가 사색의 결과를 어떻게 글로 구조화할 것인지 계획한 결과입니다.

- ① ㉠ : 염소의 ‘종종걸음’, ‘턱 밑의 귀여운 수염’, ‘그 울음’ 등을 서술한 것에서 작가가 염소의 모습을 묘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② ㉡ : 염소가 ‘다투어 푸른 잎을 뜯어 먹듯’ 한다고 표현한 것에서 작가가 염소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존재에 대한 연민을 드러냈음을 알 수 있다.
- ③ ㉢ : 염소의 ‘내일 아침’에 대해 서술한 것에서 작가가 염소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 상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④ ㉣ : ‘저 주인’의 ‘걸어가는 그 길’에 대해 언급한 것에서 작가가 염소 주인의 운명도 염소의 운명처럼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⑤ ㉣ : ‘나’가 ‘염소가 지나간 그 보도 위로 걸어’온다고 한 것에서 작가가 염소와 그 주인에 대해 사색한 내용을 자신과 결부시켰음을 알 수 있다.

[24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하얀 박꽃이 오들막\*을 덮고  
당콩\* 너울은 하늘로 하늘로 기어올라도  
고향아  
여름이 안타깝다 무너진 돌담

[A]

돌 위에 앉았다 섰다  
성가스런 하로해가 먼 영에 숨고  
소리 없이 생각을 드디는 어둠의 발자취  
나는 은혜롭지 못한 밤을 또 부른다

도망하고 싶던 너의 아들  
가슴 한구석이 늘 차그웠길래  
고향아  
돼지굴 같은 방 등잔불은  
밤마다 밤새도록 꺼지고 싶지 않았지

[B]

드디어 나는 떠나고야 말았다  
곧 얼음 녹아내려도 잔디풀 푸르기 전  
마음의 불꽃을 거느리고  
멀리로 낯선 곳으로 갔더니라

그러나 너는 보드러운 손을  
가슴에 얹은 대로 떼지 않았다  
내 곳곳을 헤매어 살길 어두울 때  
빗돌처럼 우두커니 거리에 섰을 때  
고향아  
너의 부름이 귀에 담기어짐을  
막을 길이 없었다

“돌아오라 나의 아들이  
까치 등주리 있는  
아까시야가 그림지 않느냐  
배암장어 구워 먹던 물방앗간이  
새잡이 하던 버들방천이  
너는 그림지 않나  
아롱진 꽃그늘로  
나의 아들이 돌아오라”

[C]

나는 그리워서 모두 그리워  
먼 길을 돌아왔다만  
버들방천에도 가고 싶지 않고  
물방앗간도 보고 싶지 않고  
고향아  
가슴에 가로누운 가시덤불  
돌아온 마음에 싸늘한 바람이 분다

[D]

이 며칠을 미칠 듯이 살아온 내게  
다시 너의 품을 떠날려는 내 귀에  
한마디 아까운 말도 속삭이지 말어다오  
내겐 한 걸음 앞이 보이지 않는  
슬픔이 물결친다

[E]

하얀 것도 붉은 것도  
너의 아들 가슴엔 피지 못했다  
고향아  
꽃은 피지 못했다

— 이용악, 「고향아 꽃은 피지 못했다」—

\* 오들막: 오두막의 함경도 방언.  
\* 당콩: 강낭콩.

(나)

어려서 나는 램프불 밑에서 자랐다,  
밤중에 눈을 뜨고 내가 보는 것은  
재봉틀을 돌리는 젊은 어머니와  
실을 감는 주름진 할머니뿐이었다.  
나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다.  
조금 자라서는 캔델라\*불 밑에서 놀았다,  
밝은 칠흙 같은 어둠  
지익지익 소리로 새파란 불꽃을 뿜는 불은  
주정하는 험상궂은 금점꾼들과  
샘이 늦는다고 몰려와 생떼를 쓰는 그  
아내들의 모습만 돋움새졌다.  
소년 시절은 전등불 밑에서 보냈다,  
가설극장의 화려한 간판과  
가갯방의 휘황한 불빛을 보면서  
나는 세상이 넓다고 알았다, 그리고

나는 대처로 나왔다.  
이곳 저곳 떠도는 즐거움도 알았다,  
바다를 건너 먼 세상으로 날아도 갔다,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들었다.  
하지만 멀리 다닐수록, 많이 보고 들을수록  
이상하게도 내 시야는 차츰 좁아져  
내 망막에는 마침내  
재봉틀을 돌리는 젊은 어머니와  
실을 감는 주름진 할머니의  
실루엣만 남았다.

내게는 다시 이것이  
세상의 전부가 되었다.  
— 신경림,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

\* 캔델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석유로 불을 켜서 밝히는 등.

24. [A] ~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계절감을 주는 이미지와 시적 공간의 황량한 분위기를 결부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② [B]: 화자의 심정을 과거 고향의 사물에 투영하여 고향에 친밀감을 느끼고자 했던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③ [C]: 고향이 화자에게 건넨 말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그리움을 환기하는 시적 공간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④ [D]: 화자의 내면을 자연물에 비유하여 시적 공간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E]: 화자가 고향에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시적 공간에 미련을 두지 않으려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5.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칠흑 같은 어둠’과 ‘휘황한 불빛’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내면과 외부 세계 사이에 조성되는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험상국은 금점꾼들’에서 ‘생떼를 쓰는’ ‘아내들’로 묘사의 초점을 이동하여 정겨운 공동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멀리 다닐수록’을 ‘많이 보고 들을수록’과 연결하여 이동 범위의 확대가 인식의 성장을 가로막았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램프불 밑에서 자랐다’, ‘칸델라불 밑에서 놀았다’, ‘전등불 밑에서 보냈다’의 변화를 통해 화자가 경험한 세계가 점점 확장되어 왔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나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다’를 ‘내게는 다시 이것이’ ‘세상의 전부가 되었다’로 변형하여 화자가 기억하는 어릴 적 공간의 이미지가 달라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26.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자신이 태어나 주로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갔다가 구심점이 되는 그곳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귀소 의식은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양상으로 그려진다. (가)에서는 고향을 떠나 힘겨운 삶을 살던 화자가 자신을 부르는 힘에 이끌려 귀향을 하게 되지만, 고향이 자신이 생각했던 고향과 거리가 있음을 깨닫고 다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상황을 보여 준다. 그리고 (나)에서는 바깥세상이 주는 재미에 빠져 유랑하던 화자가 자신을 낳아 주고 길러 준 모성적 세계로 회귀하고자 하는 의식을 보여 준다.

- ① (가)에서 화자가 ‘고향아’ ‘꽃은 피지 못했다’라고 한 것은, 되돌아온 고향이 화자가 생각했던 고향과 거리가 있는 세계였음을 나타내는 것이겠군.
- ② (나)에서 화자가 ‘내 망막’에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만 남았다’라고 한 것은, 화자가 자신의 근원인 모성적 세계를 그리워하게 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③ (가)의 ‘마음의 불꽃’은 화자가 고향을 떠나면서 아픔을 느꼈음을, (나)의 ‘새파란 불꽃을 뿜는 불’은 화자가 고향을 떠나고자 하는 열망을 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겠군.
- ④ (가)의 ‘내 곳곳을 헤매어 살길 어두울 때’는 고향을 벗어난 곳에서 화자가 느꼈던 삶의 힘겨움을, (나)의 ‘이곳 저곳 떠도는 즐거움’은 화자가 바깥세상을 떠돌며 빠져 있었던 재미를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⑤ (가)의 ‘너의 부름이 귀에 담기어짐’은 고향을 떠난 화자가 고향의 부름에 이끌렸음을, (나)의 ‘내 시야는 차츰 좁아져’는 유랑하던 화자가 구심점의 세계로 회귀하려는 의식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27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원수는 서번과 서달을 물리치고 황성으로 돌아가던 중 단원사에서 모친과 경패 낭자를 상봉한다.

서로 그리워하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모친을 모시고 중당에 좌정하여 서로 즐거움을 나누었다. 이때 부인 양씨가 장도를 만지면서 말하였다.

“내가 부친과 너를 생각하여 슬퍼하고 있을 때 어떤 두 여인이 절에 의탁하고자 하였는데, 그 모습과 사정이 나와 비슷하였기에 머리를 깎고 나와 스승과 제자가 되었느니라. 그런데 후원에서 애절하고 원망하는 듯한 울음소리가 나기에 위로하러 갔더니, 옷을 만지면서 슬퍼하고 있더구나. 괴이하게 여겨 물었더니, 낭군의 신표라 하기에 더욱

[A] 보자고 하여 받아 보았더니 나의 솜씨였고 너의 옷이었다. 마음에 너무 기쁘고 즐거웠으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도 진정으로 믿을 만한 표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았단다. 그러다 네 부친이 절강의 장 도사에게 관상을 보이고 나서 생년월일시를 적어 비단 주머니에 넣어 옷깃 속에 넣어 두었던 것이 기억이 났단다. 이것을 믿을 만한 표식으로 여겨 사오 년을 서로 아껴 주고 위로해 주며 지냈느니라.”

이것을 듣고 원수가 모친께 아뢰었다.

“소자도 그때 도적이 데리고 가다가 중도에서 버렸기에 의탁할 곳이 없었는데, 마침 낭자의 부친이 데려다가 사랑하고 아껴 주시고 낭자와 백 년의 가연을 정해 주었습니다. 또 통관이 계시하신 대로 호 씨의 구박을 견디다가 결국

[B] 낭자와 이별하고 동서로 결식하며 다녔습니다. 그러다 천행으로 서주의 왕 상서 태에 의탁하여 왕 상서의 사환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서의 명으로 황성에 갔다가 천행으로 과거를 보아 장원 급제하여 한림학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이어 서주에 내려가 왕 상서의 여식과 혼인한 이야기와 황성에 올라가 원천의 딸을 후궁으로 삼은 이야기를 부인과 낭자에게 말씀 드리니 ㉠ 부인과 낭자가 이 말을 듣고 더욱 즐거워하였다.

원수가 다시 아뢰었다.

“천자께서 명하시어 소자를 불러 이르시기를, ‘서번과 서달이 삼십육도 군장과 도모하여 대국을 침범하였노라. 너를 대사마 대원수로 삼으니, 이 사인검을 가지고 정병 팔십 만을 조발하여 번국을 소멸하여라.’ 하셨습니다. 이에 소자가 한 번 전장에 나아가 서번과 서달, 삼십육도 군장을 모두 소멸하여 천을 만분의 일이나마 갚고 돌아오다 서천관에 이르러 유숙하고 있을 때, 금산사 화주승이라 하는 노승이 꿈에 나타나 여남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여남에 이르렀는데 또 그 도사가 꿈에 나타나 단원사를 찾아가면 절로 부모와 낭자를 만날 것이라 하기에 이리로 온 것입니다.”

[C] 이렇게 그간의 사연을 말씀드리니, ㉡ 부인과 낭자가 이 말을 듣고 더욱 황제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도사의 신기함에 감복하였다.

(중략)

원수는 행군의 여정이 피곤하여 잠깐 졸았는데, 전날 밤중 꿈속에 나타났던 도사가 또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원수는 부친을 눈앞에 두고 어찌 잠만 깊이 자십니까?”

그러고는 문득 사람이 보이지 않거늘, 깨어 보니 남가일몽이었다. ㉢ 마음이 뒤숭숭하였으나 도사의 영감과 신기함은 탄복

할 만하였기에, ‘도사의 은혜를 생각하면 갚을 길이 없구나.’ 하면서 혹시라도 부친을 찾을까 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여 각도와 각 읍의 자사와 수령을 모두 청하였다.

자리를 정하고 즐기며 차례로 술잔을 권했는데, 부남은 남방의 대관이었기에 부남 태수가 오른쪽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다. 잔이 두세 번 돌아간 뒤에 부남 태수가 눈을 들어 원수의 거동을 자세히 살펴보니, 선풍도골이어서 천상의 선관이 하강한 듯하였다. 그런데 조금도 즐거워하는 빛이 없었고 차고 있던 ㉠ 장도를 만지면서 슬퍼하는 듯하였다. 이를 보고 ㉡ 부남 태수가 문득 풍운이 생각나 흐느끼며 생각하기를 ‘풍운도 살아 있다면 내가 주었던 장도를 만지면서 저렇듯이 슬퍼하지 않겠는가.’ 하며 자세히 보니 원수의 장도가 풍운에게 채워 주었던 장도와 똑같았다. 이에 마음속으로 너무 놀라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공경을 표하고 원수에게 물었다.

“원수가 차신 장도는 반드시 보검일 듯합니다. 황송하오나 한번 구경하고자 하옵니다.”

원수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오히려 반기면서 장도를 꺼려 주었다. ㉢ 부남 태수가 자세히 보더니, ‘이것은 정녕 자식 풍운의 칼이로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였다. 원수가 이에 더욱 이상하게 여겨 물어 말하였다.

“태수는 이 칼을 보시고 어찌 슬퍼하며 흐느끼십니까?”

태수가 아뢰어 말하였다.

[D] “황송하오나 하관이 앞뒤의 내력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양 참군의 딸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장인이신 양 참군의 부친 양 상서께서 대국으로 사신을 갔다가 연왕이 정표로 이 장도를 주었습니다. 그런 연고로 양 상서가 이 장도를 가지고 오셔서 대대로 전하는 물건으로 삼았습니다. 양 상서가 이 장도를 양 참군에게 전하였는데, 양 참군은 후사가 없고 따로 전할 데도 없어서 하관에게 주었습니다. 이 장도 이름은 연평검이니 하관이 매우 아끼던 것입니다. 제가 늦게야 한 아들을 낳았는데 용모가 비범하였기에 행여 단명할까 염려가 되어 절강의 도사에게 관상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열 살 이전에 부모와 이별할 것이라고 하기에 혹 이별하더라도 서로 잊지 않기 위해 장도를 자식에게 채우고 생년월일시를 써 비단 주머니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 뒤에 난리가 났는데, 하관은 황명을 받아 가달을 치러 경사로 올라갔고, 처 양 씨가 아들을 데리고 집에 있었습니다. 하관이 가달을 평정하고 돌아오니 천자께서 하관에게 부남 태수를 제수하셨습니다. 이에 부남으로 내려올 때 고향에 들렀더니 집은 비었고 처는 간 데가 없었습니다. 어쩔 줄 모르고 사방으로 찾았으나 종적을 알 수 없어 홀로 부남에 도임하였습니다. 오늘날 원수가 차신 장도를 보니, 문득 자식이 생각나 슬픈 마음이 듭니다. 이 칼을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원수가 이 말을 듣고 정신이 아득해졌다. 바로 그 주머니에서 ㉣ 생년월일시를 써 둔 유서를 내어 태수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통곡하며 말하였다.

“소자가 불초자 풍운이로소이다.”

그러고는 지극히 애통해하니, 태수가 정신을 차리고 그 유서를 받아 보니 과연 자신의 친필이 분명하였다.

— 작자 미상, 「장풍운전」 —

27.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부남 태수는 자신의 부인과 아들의 종적을 알지 못한 채로 부남에 부임했다.
- ② 양 씨는 남자가 자신의 며느리임을 알고 나서 스승과 제자의 연을 맺었다.
- ③ 원수가 도적에게 잡혀 있을 때 남자의 부친이 원수를 도적으로부터 구해 주었다.
- ④ 원수는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서주의 왕 상서 댁에 자신을 의탁했다.
- ⑤ 부남 태수는 원수의 기질과 풍채를 보고 원수가 자신과 닮은 점이 많다고 판단했다.

28. <보기>를 참고하여 [A] ~ [D]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장풍운전」은 가족이 헤어졌다가, 주인공이 입신양명하고 큰 공적을 세우는 데에 힘입어 가족이 다시 만남으로써 가문의 번영을 이루는 방향으로 서사가 전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물들이 만나 나누는 대화를 통해 서사가 압축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독자는 이를 통해 인물들이 헤어져 각자 겪은 일들, 인물들이 새롭게 맺은 관계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독자는 인물들이 겪은 일들을 서로 연계하여 사건의 성격이나 전후 사정 등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 ① [A]에서 모친이 자신이 지은 원수의 옷을 남군의 신표로 간직하고 있는 여인을 만났다고 했는데, [B]를 통해 원수가 그 여인과 연을 맺은 전후의 사정을 알 수 있어.
- ② [A]에서 원수의 부친이 절강의 장 도사에게 원수의 관상을 보였다고 했는데, [D]를 통해 부친이 원수의 관상을 보인 이유를 알 수 있어.
- ③ [B]에서 원수가 한림학사를 지냈다고 했는데, [C]를 통해 한림학사에서 대사마 대원수가 되어 가문의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큰 공적을 세웠음을 알 수 있어.
- ④ [B], [D]를 통해 원수와 부친의 이별이 두 사람에게 시련을 초래했지만 두 사람에게 조력자들을 만나 출세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음을 알 수 있어.
- ⑤ [C], [D]를 통해 전쟁이 원수가 가족과 헤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원수가 가족과 재회하게 되는 노정에 오르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어.

29.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인물들이 연민의 정서를 주고받는 수단이 되고 있다.
- ② ㉡은 인물 간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 ③ ㉠과 달리 ㉡은 인물들에게 일어난 사건들의 비현실적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 ④ ㉡과 달리 ㉠은 미래에 인물에게 일어날 일을 예고하고 있다.
- ⑤ ㉠, ㉡은 모두 인물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증표가 되고 있다.

30. ㉠~㉣를 통해 인물들의 심리와 태도를 추리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원수가 한림학사를 제수받은 이후의 행적을 모친과 낭자가 긍정적으로 여겼다.
  - ② ㉡: 원수의 모친과 낭자가 황제와 도사에게 고마운 마음을 느꼈다.
  - ③ ㉢: 원수가 자신의 꿈속에 나타난 도사를 신뢰했다.
  - ④ ㉣: 부남 태수가 자신의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느꼈다.
  - ⑤ ㉤: 부남 태수가 원수를 자신의 아들로 확신했다.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폐병을 앓고 있는 현일은 길에서 함께 있는 옛 동료 교사 도영과 제자 병수를 만난다. 병수는 폐병을 앓고 있는 도영이 약으로 쓸 구렁이와 지렁이를 잡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다. 도영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현일은 병수와 대화를 나눈다.

“하루바빠 하면 뭘 합니까? 학생 생활도 세월 보내는 한 수 단일는지도 모르니까 요행 있는 학비니 할 수만 있으면 오래 학창 생활을 해 보렵니다.”

“음……”

“학생 생활에만 애착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나서기가 무서워서 그러죠.”

“그것이 요새 젊은이들의 생각인가? 혹시 자네만이 그런가?”

“글썄올시다.”

“그런 것이 소위 불안이라는 유행병인가?”

어느덧 이야기가 또 이렇게 되풀이되는 것이 현일은 불쾌하였다. 병수를 만나면 젊은이의 청신한 기분을 맛보려니 기대하였던 자기가, 자기 말조차 이렇게 빠져지는\* 것이 우울하였다.

“물론 시대적 원인도 크겠지만 자네같이 젊고 무엇을 하려면 할 수 있는 처지의 사람은 ㉠ ‘나만은 그런 유행병에 감염이 안 된다’는 의지와 패기를 가져 볼 수는 없을까?”

이러한 현일의 말에

“제가 불안 병자로 자처하는 배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선생 말씀같이 쉽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 선생께서 말씀하시는 의지나 패기는, 오히려 선생의 신병과 정신적 타격의 반동이 아닐까요?”

하였다.

이렇게 속에 있는 대로 털어놓고 보니 병수는 도리어 쓸쓸하였다. 말이 지나쳤다고 후회되었다.

M학교 시대에 또 각혈을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현일 선생이 그러한 때마다 ‘개체인 자신이 불행하더라도 그 때문에 결코 인생을 어둡게 보거나 저주할 것은 아니라’고 열성적으로 강조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감격하였고 현일 선생을 더욱 숭배하였던 것을 생각하였다.

그러한 희생과 추억과 지금의 자기 태도를 생각할 때 병수는 더욱 쓸쓸하였다. 이런 것이 문학청년다운 자기의 예민한 관찰을 자랑하려는 경박한 것이 아닐까고도 생각되었다.

㉢ 현일은 현일이대로 병수의 말에 아픈 타격을 느낄밖에 없었다. 절망적으로 자기 생명의 위험을 느낄 때마다 지금까지의 노력 정진 전진 노력으로 싸우며 살아온 자기의 일생이 이뿐이냐 하는 생각에 한 사회인으로 무엇을 해 보겠다는 희망도 야심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세상이 어둡고 인생을 저주하고 싶은 것이었다. 그것은 감정이었다. 그러나 그때만은

그것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전부였다. 소크라테스가 아닌 범인의 본능이었다.

그러한 자기의 감정과 본능을 이론적으로 극복하려는 심정으로 수신 시간의 강의는 더욱 열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현일은 병수의 온건치 않은 말이 불쾌하면서도 전연 억측만도 아닌 바에야. 그러나,

“그러나 자네 말대로 내가 절망적이에요, 그 반동으로 의지와 패기를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에게서는 의지와 패기가 필요할까요? ㉣ 물론 나는 건강으로나 교육자로나 절망적이지만, 자네 같은 사람들이야 왜.”

“결국 용기 문제겠지요.”

이렇게 대답하는 병수는 용기 없다기보다는 용기를 일으킬 만한 사상과 신념을 붙들지 못하였다는 것이 솔직한 말이 아닐까고 생각하였다.

(중략)

병수가 무엇이랴 대답할 사이도 없이 도영의 입에서 피가 솟구쳐 나오기 시작하였다.

피가 좀 몇자 기신을 못 차리는 그의 입언저리의 피를 씻으려고 병수는 손수건을 들고 다가앉았다. 그것을 본 현일은 병수를 떠밀어 내며 노기를 띤 언성으로 “저리 가라니까” 소리를 지르고 자기 손수건을 내어 도영의 머리를 가슴에 안고 얼굴을 씻으며

“이런 더러운 피에 왜 손을 적시려나…… 정신 차리거든 내가 다리구 같게 자넨 가게나.”

병수는 할 수 없이 돌아서 성문으로 들어갔다.

처음같이 피가 솟구쳐 나지는 않지만 그치지 않고 입언저리로 가늘게 흘러내렸다. 도영의 머리를 자기 가슴에 기대어 놓은 현일이는 피가 몇을까 하여 자기 수건과 도영의 수건을 모두 적시어 보았으나 끝이 없었다.

할 수 없이 돌 위에 옷저고리를 접어 놓은 베개에 도영이를 누이고 정신 차리기를 기다릴밖에 없었다. 성벽 저편으로 해가 기울어서 진한 그림자가 덮이고 바람이 불었다.

아무리 저녁인데 이 여름에 바람이 싫으니…… 나 역시 이 세상과는 벌써 인연이 떨어진 사람이로구나.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며 현일은 앞가슴에 옷자락을 여미고 송장 같은 도영의 옆에 었다.

절망과 패기. 비관과 낙관. 그 두 가지 정반대의 생각을 번갈아 가며 지금까지 살아왔거니.

절망과 비관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었다. 뼈를 깎는 듯한 절망에 부대끼다 못하여 애써 빈약하지만 자기의 **철학의 지식을** 끄집어내어 구원한 인생의 발전을 명상해 볼 때에는 **청정한 공기를** 호흡하듯이 상쾌함을 느끼는 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자기도 한 짐을 맡았으면 하는 패기도 느껴보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을 등지고 죽어 가는 자신을 생각할 때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듯한 절망을 느낄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오직 자기의 세계라면 참고 사는 때까지 살아가리라 하였다. 그러나 또 견딜 수가 없었고 아직 남은 **마음의 탄력**으로 또 상쾌한 명상으로 떠올라 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내게는 무엇이 남았으랴. 절망인들 남았으랴. 죽어 가는 **폐어**에게 물도 공기도 무슨 소용이랴. 지금 폐어는 **반신(半身)** 물에 잠기고 **반신 바람에** 불리면서도 두 가지 **호흡의 기능**을 다 잃고 죽어 가는 것이라고 현일은 꿈속같이 생각하며 죽은 듯이 었더 있었다.



얼마 후에 성문 저편에 자동차가 멎고 병수가 돌아왔다.  
운전수의 손을 빌려서 도영이를 차에 싣고 떠났다. 죽은 듯  
한 도영이를 무릎 위에 누이고 현일은 차 한편 모퉁이에 기대  
었다. 눈도 뜰 수 없이 피곤하였다.

㉔ 운전대에 앉아서 돌아보는 병수는 ‘이런 더러운 피에 왜  
손을 적시려나’ 한 선생의 말을 생각하였다.

— 최명익, 「페어인」 —

\* 빼여지는: 빗나가는.

3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병수는 자신의 속에 있는 말을 현일에게 하고 후회했다.
- ② 병수는 병이 발작해 쓰러진 도영을 위해 자동차를 타고 돌아왔다.
- ③ 현일은 병수와의 만남이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달라 우울함을 느꼈다.
- ④ 병수는 실생활에 나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학창 생활을 오래 하겠다고 말했다.
- ⑤ 현일은 자신의 말에 대한 병수의 비판을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여겨 불쾌함을 느꼈다.

32.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외양을 감각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인물의 내적 독백을 제시하면서 인물의 내면 의식을 진술하고 있다.
- ③ 공간적 배경을 사실적으로 제시하여 사건 전개와 필연성을 확보하고 있다.
- ④ 관찰자의 시점에서 인물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인물의 행적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하나의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다.

33. <보기>에서 선생님이 제시한 활동을 통해 [페어]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페어는 물속에서도 물에서도 호흡하는 물고기입니다.  
페어와 관련하여 형성될 수 있는 물속과 물, 물과 공기의  
대조적 의미 관계는 이 작품에서 ‘현일’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페어에 대해 이해해 봅시다.

- ① 페어가 ‘두 가지 호흡의 기능’을 모두 잃고 죽어 가는 것은 현일이 패기를 잃은 데다가 절망조차 남아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 ② 페어가 ‘반신 물에 잠기고 반신 바람에 불리’는 것은 현일이 낙관적 생각을 하지 못하고 비관적 생각만 하며 살아온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 ③ 페어가 물위로 떠올라 ‘청정한 공기’를 호흡하는 것은 현일이 인생을 등지고 더 깊은 절망감에 빠져드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④ 페어가 ‘마음의 탄력’으로 떠오르는 것은 현일이 현실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고 심적 안정 상태에 이르렀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⑤ 페어가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현일이 ‘철학의 지식’을 끄집어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34. <보기>를 참고하여 ㉑~㉔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이 작품은 암울했던 일제 말기에 기성세대와 청년 세대가 서로에 대해 지녔던 의식과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이 작품 속 기성세대는 청년 세대에게 실망감과 안타까움을 느끼는 한편, 그들에 대한 책임 의식과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청년 세대는 기성세대를 냉소적으로 대하기도 하지만 외면하지 않고 기성 세대의 생각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① ㉑에서는 현일이 현실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병수의 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㉒에서는 병수가 부정적 현실에 맞서는 정신적 태도를 강조하는 현일의 말에 대해 냉소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㉓에서는 현일이 사회인으로서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일을 계획하는 데 현일의 마음을 아프게 한 병수의 말이 영향을 주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㉔에서는 현일이 자신의 조연에 대한 병수의 반문과 관련해 자신과 병수를 구분하고 병수가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
- ⑤ ㉔에서는 병수가 자신을 염려해 주는 마음에서 현일이 했던 말의 의미를 헤아려 보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